

진단 민선5기 제주농정 3년 성과와 과제

차별화된 시책으로 ‘전국 최고’ 결실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고루 잘사는 농촌, 더 행복한 농업인’을 비전 및 목표로 삼고 ‘직지만 강한 제주농업’을 일구기 위한 각종 차별화된 시책을 펼쳐왔다. 덕분에 FTA(자유무역협정) 체계적 대응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경쟁에 취약한 중소농 지원 확대, 감귤조수입 9000억원 시대 재도약, 감귤 수출확대·밭작물 수급 조절 및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밭산업 특구 유치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 종합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개방화에 따른 FTA 종제적 대응책 마련과 새 정부의 차질없는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점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 3년간 민선 5기 제주농정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 전국 ‘처음·최고’ 기록 달성=제주 농정의 주요 사업에는 ‘전국 처음, 최고’라는 수식어가 곧잘 따라붙는다.

민선 5기 들어 1차산업 조수입 첫 3조원 시대 개막·농가소득 전국 1위 기록, 외 전국 최고의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전국 첫 매머드급 FTA법도민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23개 분과·49명), 전국 첫 읍면고등학교 통학 농업인 자녀 교통비 지원, 월동무 재배신고제 전국 최초 도입·시행, 전국 최초 가축분뇨 이력 추적관리시스템 도입·전국 최초 광역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제주도 열처리 돈가스 전국 최초 일본 수출 등 상당한 성과가 일궈

졌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국 유일’의 시책도 눈에 띈다. 우선 정부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위주의 정책 차지도는 제주돌답밭 국가농업 유산 지정에 이어 FAO 세계농업유산 등재 도전도 하고 있다.



조수입 3조원 시대 개막·전국 유일 친서민 영농시책
매머드급 FTA법도민특위 구성 등 개방화시대 대응
감귤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FTA 총제적 대응 과제



▶ 제주농정의 파워업 효과=제주농정의 농업인 중심 시책은 1차산업 전반에 걸쳐 파워업 효과를 내고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특별시책은 친환경농사를 학교급식 확대(올해 어린이집 포함 889개교 시행)와 대도시 전문판매장 운영으로 지난해 314억원(2008년 102억원)의 매출 효

과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가장 취약한 유통문제 제도개선으로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됐다.

당근, 빙글, 우뭇가사리, 콩, 고구마 등 제주 향토자원의 고부가 가치 식품산업화도 기반이 구축되면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감귤 부농프로젝트는 지난해 감귤 조수입 첫 8000억원대 돌파로 이어졌다. 농산물원종장 중심의 골드씨드밸리 조성사업은 감귤육종, 키위 등 아열대과수,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자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으로 소득·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양산해내고 있다.

▶ 향후 과제=제주 1차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한·중 FTA가 진행되는 현재, ‘제주농정’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월등체소류의 생생산업 육성,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흑돼지·흑우 등 향토자원 사업화 R&D 지원 및 기반시설 등 산업화 인프라 확충,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한·중 FTA 극복을 위한 관련부처와 학자인 구축으로 중장점출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 FTA기금사업에 제주형 과수정책을 확대 반영시키는 일도 급선무다. 무엇보다 감귤의 한·중FTA 양허제외 품목 포함 등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제주 감귤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를 상대로 도의 적극적인 후속 이행 촉구가 필요하다.

오은지기자 ejohn@ihalla.com



친서민 영농시책 등 차별화 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우 도정은 FTA 대응과 감귤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등 향후 과제도 안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제주시정 소식

- 제6회 밭담의 숨결 브로콜리와 해변의 특별한 만남 -
브로콜리 해변가요제

○ 일시 : 2013. 8. 3(토) 14:00 ~ 21:30 ※ 개막식 : 19:00 ○ 장소 : 광지과물해변 ○ 주요내용 : 무대행사, 홍보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브로콜리 해변가요제

○ 일시 : 2013. 8. 3(토) · 예선 : 2013. 8. 3(토) 14:00 · 본선 :

2013. 8. 3(토) 19:30(*개막식 직후), 12팀

○ 장소 : 광지과물해변 내 축제 메인무대 ○ 참가대상 : 도민, 관광객 등 ○ 참가신청·신청기간 : 2013. 7. 15(월) ~ 2013. 7. 31(수)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제출 - 애월읍사무소 방문 및 팩스·우편 접수 * 행사 당일 관광객 대상 현장 선착순 접수 ○ 시상 : 6팀[트로피 및 부상] · 대상(50만원), 금상(30만원), 은상(20만원), 동상(10만원), 인기상(10만원) · 접수 및 문의 : 애월읍사무소(☎ 728-8814, Fax 728-8819)

2013 제10회 제주 이호테우축제

○ 일시 : 2013. 8. 2(금) ~ 8. 4(일) ○ 장소 : 이호테우축제 일원 ○ 주관 : 이호테우축제위원회 · 이호동연합장년회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 2013. 8. 1 ○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지방교

육세 포함) -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읍?면지역 : 5,500원,

동지역 : 6,600원) -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55,000원)

-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55,000원 ~ 550,000원) ○ 납부

기간 : 2013. 8. 16 ~ 2013. 9. 2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 은행창구 현금 납부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납부 -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 입금 전용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 ARS 납부(1899-0341) →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결제 - 신용(체크)카드 및 카드포인트 납부(음?면?동 및 세무1과 방문) · 문의 : 제주시청 세무1과(☎ 728-2352-2354), 음?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 2013. 7. 25(목)~8.5(월) ○ 매일20:00 ○ 제주해변공연장

○ 주요프로그램 : 기악, 합창, 무용, 대중예술, 광장 악의 전시회

시진전, 시화전) 페스티벌인 등 · 문의 : 문화예술과(☎ 728-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납부의 달

○ 7월 재산세 부과 개요 · 납세기준일 : 2013. 6. 1 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분세(연세액) 기준 10만원 이상하는 7월에 연납으로 과세 ○ 납부기간 : 2013. 7. 16 ~ 2013. 7.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납부 : 위택스, 지로, 각은행 공과금 센터 · 신용카드납부, 은행CD/ATM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입금전용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날짜기밀일에 인출 · 입금전용계좌 이체 : 1인1계좌 사용 ○ 조기납세자 결제주체 · 주체대상 : 7.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 주체방법 : 지방세 전산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 · 주체시기 : 2013. 8. 10일경 · 당첨인원 및 금액 : 150명, 2만원상당 상품권 · 문의 : 제주시청 세무2과(728-2382~2385), 음?면 및 동주민센터

2013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13. 7. 8 ~ 7. 26(19일간)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12회 삼양검은모래해변 축제

○ 개최기간/장소 : 2013. 7. 26(금) ~ 7. 27(토) 2일간 / 삼양검은모래해변 일원 * 개막식 2013. 7. 26(금) 20:00 ○ 주최/주관 : 삼양 검은 모래해변축제위원회/삼양동 연합장년회 ○ 주요 행사 - 참여·체험행사 : 바다잡이, 용진수 물맞이체험, 검은 모래 짤막체험, 선사유적 체험 등 - 공연·전시행사 : 모래조각 전시 및 모래상 쌓기, 작은음악회 등 - 기타 행사 : 개막식, 축하공연 등 · 문의 : 삼양동주민센터(☎ 064-728-4711~5)

기독교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영문번역 서비스

○ 대상 : 등록기준이 상관없이 제주도민이면 모두 신청 가능 ○ 접수처 : 제주시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동 ○ 소요기간 : 신청 후 1~3일 ※ 번역의 공증은 민원인이 공증인사무소에 직접 신청

· 문의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기록관계담당(☎ 064-728-2122, 2121)

아기 출생 카드 발급 서비스

○ 발급비용 : 제주도내 출생아(출생신고 시 접수) ○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혈액형, 사진, 태어난 일시, 부모

비밀번호, 예방접종 시기 등 ○ 신청인 : 아기의 직계혈족 · 문의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064-728-2104)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는 2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제주의 돌문화를 찾아’를 주제로 제주건축문화답사에 나서 제주밭담과 돌문화의 정수를 만끽했다. 강경민기자 photo6n6@ihalla.com

“돌문화·밭담, 제주 아껴야 하는 이유”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구좌 하도리 일대 돌문화 답사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앞두고 제주

의 돌문화와 밭담을 이해하고 그

진수를

만끽하는 관심과 열기

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김태일·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난 2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마을 일대를 찾아 제주 돌문화 답사에 나섰다. 답사에는 제주지회 회원과 가족은 물론 답사를 신청한 일반인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본사 취재진도 이번 답사에 동행했다.

박경훈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의 안내로 진행된 이번 답사는 하도리 특유의 밭담 풍경 앞에서는 밭담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농업을 살려야 밭담이 유지된다는 지론으로, 밭담 보전대책은 농업진흥정책과 연계돼야 하며 결국 밭담과 돌담은 하도리 마을을 중심으로 별방진

성, 밭담, 해녀 각시당, 포구 등을

둘러보는 여정이었다.

박 소장은 별방진성 내 민가의 올담을 지나며 ‘처마에 닿아있는 올담의 높이는 경계 미학을 보여 준다’고 소개했다. 올담이 프라야비에서 공간으로 닫혀 있지만 또한 이웃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그는 하도리 특유의 밭담 풍경 앞에서는 밭담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농업을 살려야 밭담이 유지된다는 지론으로, 밭담 보전대책은 농업진흥정책과 연계돼야 하며 결국 밭담과 돌담은 농민을 살리는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날 답사를 기획한 김태일 교수는 “제주밭담은 제주 돌문화의 상징이자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를 아껴야 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강시영기자

공직노동조합 상생·협력 기틀 마련 도, 전국 처음 5개 공직노조와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청 대강당에서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직, 민공노, 제주자치도 노조를 포함한 공직 노동조합과 ‘상생 협력 및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직 노사간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우근민 지사와 공무원 노조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전인의)과 무기계약직 노조인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 노조인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흥정현), 전국공공운수회사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회(지회장 박도영), 제주도로관리노동조합(위원장 백재홍) 등 5개 공직자 노동

조합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자 노동

조합은 법령 준수와 행정의 투명

성·신뢰성·책임성을

높여나가는

데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는 등 건전 노사문화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자

치도는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

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공직사회의 불

합리화 행정관행과 제도를 개선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국회의원을 초청, ‘상생과 협력의 공직 노사관계’에 대한 특강이 마련됐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과 관광